

Design Trend Key

DAILY PLEASURE

2013년은 평범함과 일상성이 새롭게 해석되는 해이다.
기괴하거나 지나치게 강렬하거나 창조성이 강한
재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재료들이 새롭게 해석된다.

때문에 기존의 방식들이 좀더 편안하게, 좀더 현대적으로,
좀더 깨끗하고 일상적으로 변화한다.
주변의 스티로폼, 전선, 쓰레기, 종이, 나무와 같이 평범하고
흔한 재료들이 새로운 해석을 통해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



세포분열가구. 평범한 둥근 형태가 세포 형태처럼 결합하고 이를 일상적인 가구에 적용시키면 친숙하지만 새로운 일상의 즐거움이 만들어진다.



소비자들이 '무엇'이 아닌 '어떻게'에 가치를 두게 되면서 부상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수공예이다. 장인정신과 수공예는 향후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속눈썹 하나까지 섬세한 장식으로 표현하고, 규격화된 뼈대에 수공예 몸체를 끼워 다양성을 추구하며, 제분하지 않은 작품집 형태의 수작업 책이 만들어진다. 기능적이고 미니멀한 형태에서조차 수공예 방식이 적용되고 가공되지 않는 소재 자체에서 영감을 얻는다. 인테리어에서도 마치 공방과 같은 외관이 주목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래프트가 민속적인 느낌 대신 현대적으로 깨끗하게 정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공적인 소재를 채택하고 보다 미니멀하고 깔끔한 외관으로 과거의 정성스럽고 옛스러운 수공예 기법은 이제 한층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된다.



수공예에서 영감을 얻은 속눈썹, 수에무라의 에스노컬러 스크프(Ethnocolor Scope)
수공예적이지만 현대적이고 인조적인 느낌도 함께 가진다.



종이의 한계를 뛰어 넘는 낸도의 래커칠한 종이 프로젝트 / Lacquered Paper-objects by Nendo

일본의 디자인 회사 낸도(Nendo)가 '래커칠한 종이 프로젝트(lacquered Paper-object)'라는 3차원적 종이 오브제 제품을 밀란 디자인 위크 2012 기간 동안 선보일 예정이다. 이 디자인 스튜디오는 수백장의 종이를 겹치고 그것을 3D 프린트기로 붙이고 하나하나 손으로 새기고 마감을 하는 방식을 이용해 그릇을 만들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듬은 오브제 외관에 두껍게 래커(Lacquer)를 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결과물은 종이라는 로우한 머티리얼(Raw Material)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니멀 X 내추럴 X 핸드메이드 델라에스파다 / De la Espada

세계적인 산업제품 디자이너 벤자민 휴버트(Benjamin Hubert)가 포르투갈 브랜드 델라에스파다(De la Espada)를 위해 디자인한 가구와 조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손으로 다듬은 대리석과 화강암, 자동차 제조업계의 가죽 장인과 협업으로 이루어졌다. 기능적이면서 참신한 구조와 매력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미니멀하게 표현했다.



핀란드 전통을 파는 마티니 숍 / Marttiini Shop

마티니(Marttiini)는 1928년부터 핀란드 북쪽 지역의 라플랜드(Lapland)에서 핀란드 전통 칼인 푸코(Puukko)를 만드는 제조 공방을 운영해왔다. 마티니 숍에는 그들의 전통을 담은 동시에 현대적이고 세련된 200여 개가 넘는 제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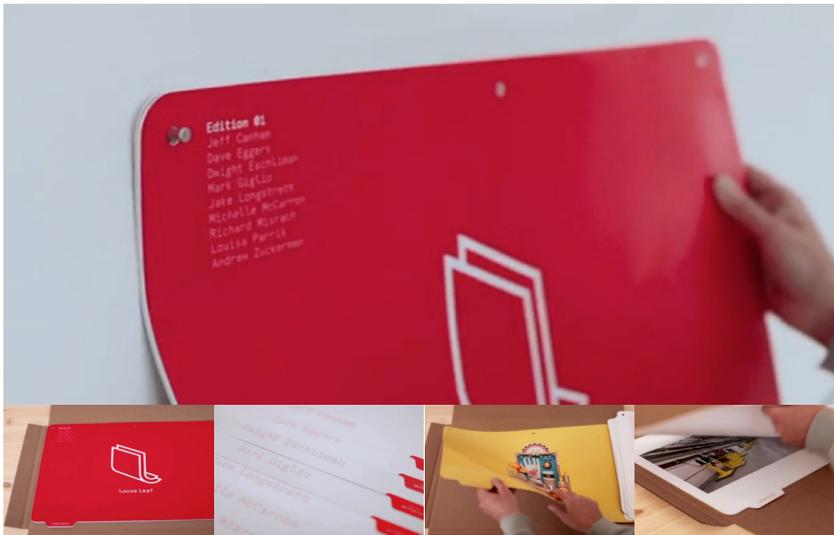
대량 생산과 개인화의 중간을 보여주는 전기 주전자 프로젝트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 밥티스트 파스트레(Jean-baptiste Fastrez)가 주방의 작은 용품부터 다양한 형태를 가져보자는 취지 하에 시작한 '전기 주전자에서의 변화(Variations upon an electric kettle)' 프로젝트를 선보였다. 파스트레가 프로젝트에서 시험해 본 것은 순수 산업 제품에서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이광호 작가의 조명등

이광호 작가의 작품 재료들은 모두 자신의 거주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며 수작업을 통해 가공하지만 수공예적이기에 앞서 미니멀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날장으로 보는 작품집 루즈 리프 / Loose Leaf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인 스튜디오 매뉴얼(Manual)이 발간한 루즈리프는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들을 제본하지 않은 채 바인더 노트 속 날장처럼 제공한다. 구독자가 자유롭게 조합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DIY 제품의 특성을 갖지만 감각적이고 깔끔한 외관으로 세련되게 마감되고 있다.



현재 기술 중 가장 주목 받는 분야 중 하나가 센서이다. 센서는 사용자의 움직임과 환경, 건강상태를 스스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2013년도에는 보다 일상성이 주목 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센서들도 점점 더 일상과 결합되어 활용도가 확장된다. 고기술이 결합된 장비들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소소한 제품에게까지 센서 기술이 결합되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사용자가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센서들이 개발된다.

주위 환경에 따라 옷의 디자인이 변하고, 환자의 상태를 알아서 점검하는 깃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손의 움직임으로 녹음 기능이 제어되고, 건강 팔찌가 나의 활동량을 측정해서 건강을 위한 조언을 해준다. 움직임과 소리를 감지하는 센서 덕에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스캔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린 그림을 데이터화할 수 있다.



조본의 일상의 건강체크 팔찌

전자제품 브랜드 조본(Jawbone) 업(Up) 밴드에는 모션센서기능이 탑재되어있어 일상 활동량(운동, 수면 상태 등)을 측정한 후 모여진 데이터들을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해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언해준다. 또한 이 밴드에는 아주 작은 진동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서 알람화 기능이 가능하다. 앱에는 푸드 다이어리 기능이 있어 식단을 사진 찍어 올리고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 몸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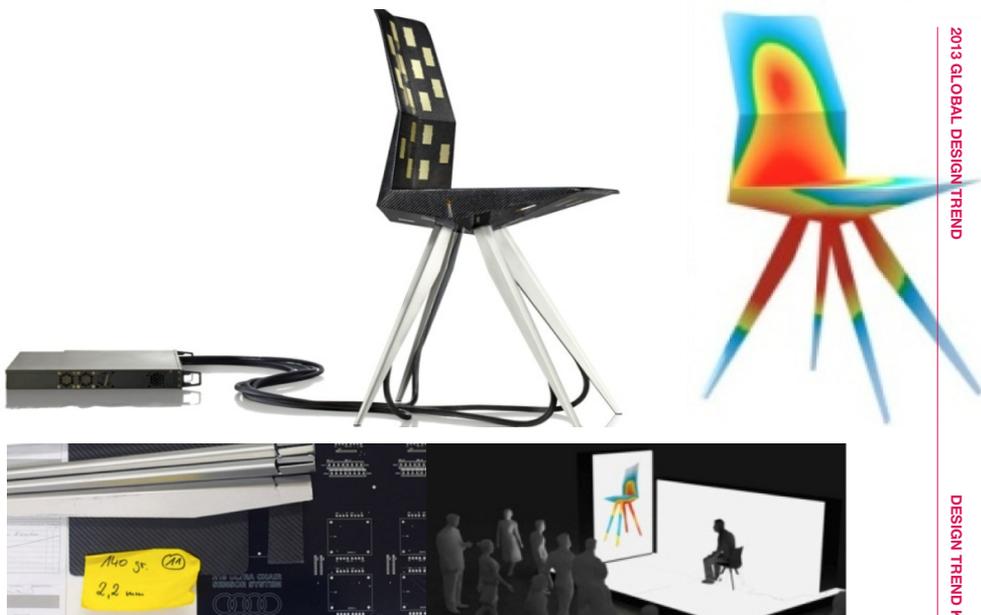
타임스퀘어를 밝게 비추는 거대 하트 BIG(heart) NYC

덴마크 건축 회사 BIG(Bjarke Ingels Group: 비아케 잉겔스)가 2012년 '발레타인 데이'를 기념하여 큰 조각을 뉴욕 46번가에 위치한 더피 스퀘어(Duffy Square)에 설치하였다. 이 인터랙티브 설치 예술 품은 붉은 빛이 심장 뿔듯 밝게 빛나는데, 사람들이 많을수록 반응에 따라 더 밝게 오통친다. 센서 기술은 이제 좀더 사람들의 즐길 수 있는 일상 라이프 스타일로 파고든다.



똑똑한 깁스

브라질 디자이너 페드로 나카자토 안드레이(Pedro Nakazato Andrade)가 깁스에 회복 정도를 알려 주는 모니터 역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회복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안한 새로운 깁스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실시간으로 좌상을 입은 근육 주변의 움직임을 트래킹해서 알려주고, 이어리스(ear-less) 기능으로 데이터를 주치의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용자끼리의 공유도 가능하다.



체압측정용 초경량 의자 / AUDI R18 Ultra Chair

디자이너 크람 & 바이스하르 (Reed Kram & Clemens Weisshaar)가 아우디(AUDI)의 경량화 (Lightweight) 디자인 센터와 협력하여 만든 'R18 Ultra Chair'는 리서치자료를 전송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 이 프로토타입의 의자에는 중앙서버에 연결된 산업용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고, 의자와 나란히 시각화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설치되어 있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의 무게 정보들이 서버로 흘러 들어 가 스크린에 표시되고 동시에 공유 가능한 비디오타입으로 전환되어 개인 메일로 전송된다.



눈으로 컨트롤하는 스마트한 구글 글래스 / Google Glass

구글은 아이트래킹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들이 쓰고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정보를 눈앞에 있는 화면으로 이용해 그대로 재생해 보여주는 특수안경 출시를 준비 중이다. 안경 하나로 네비게이션과 위치정보, 통화, 문자, 쇼핑 등 기존 스마트폰으로 가능한 기술을 음성으로 모두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다양성의 시대에서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기까지 하면서 한번도 접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을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디자인계에서도 다른 영역과의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 공동 작업)을 통해 새로움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이 많아질수록 더 낮은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진다. 기존의 조합과는 달라 보이면서, 마치 잘못 결합된 것처럼 보이는 기묘한 조합들이 신선하게 부각된다.

수중 세상과 가구의 만남, 레코드 판과 진동추가 만드는 화음, 보는 것과 촉감, 물성이 서로 다른 일상 속 물건, 2D와 3D의 만남, 타자로 만드는 칵테일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조합의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주목된다. 이는 소재에 있어서도 시각과 촉감과 느낌이 모두 다르게 표현되는 최근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바닷속 모오이의 세계.

2011 런던 디자인 위크(London Design Week: 9월 19일~ 25일) 기간 동안 네덜란드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가 그의 최신 프로모션 프로젝트인 '인어들(Mermaids)'을 예술적 감각의 가구를 선보이는 브랜드 '모오이(Moooi)'에 투영시켜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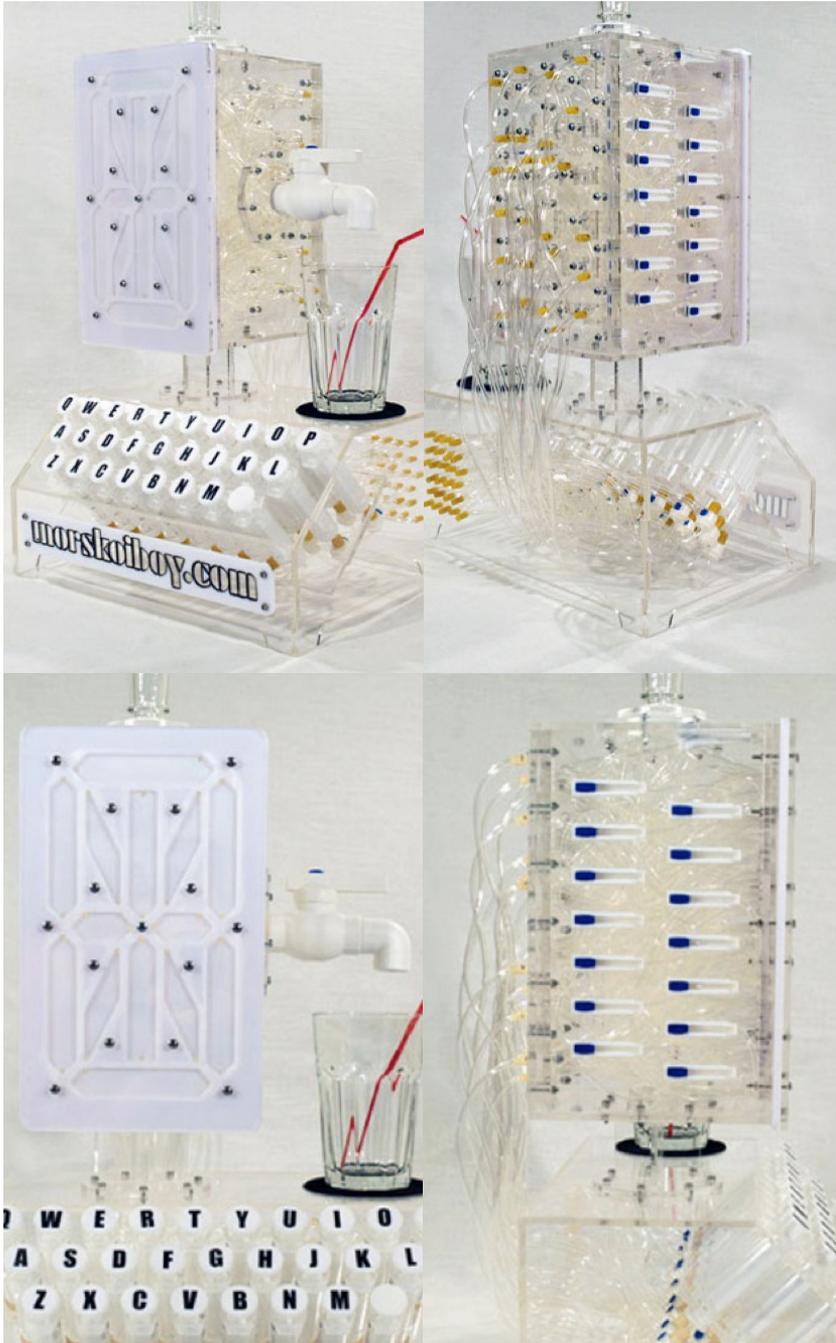
진동추 연주기

일본 쿠후에이 디자인(Kyouei Design)의 CEO이자 디자이너 쿠후이치 오카모토(Kouichi Okamoto)가 만든 새로운 악기 '진동추 연주기(Pendulum Sound machine)'는 레코드 플레이어가 돌아가면서 16개의 진동추가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한다.



현대미술과 럭셔리 조우 / 012 봄 디올과 안젤름라일레의 콜라보레이션

'디올(Dior)'이 독일 출신의 예술가 안젤름 라일레(Anselm Reyle)와 리미티드 에디션 성격으로 협업을 했다. 잡화와 뷰티영역에서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뷰티쪽에서는 안젤름 라일레가 디자인한 실버, 그레이, 차콜, 바이올렛색으로 이뤄진 카무플라주 패턴의 아이쉐도우 팔레트가 선보여졌다.



타자를 쳐서 만드는 칵테일

러시아의 DIY 공예가 모르스코이보이(Morskoiboy)는 글자 그대로 '당신의 글자를 맛보라(Taste Your Own Words)'라는 의미를 가진 타자기 모습의 칵테일제조기를 개발했다. 자판을 누르면 액체가 파이프를 타고 압축 되어 흐르면서 칵테일을 만들어준다.



일상 속 공감각

프랑스 소재 디자이너 마리 루이용(Marie Rouillon)이 세인트 마틴 대학의 석사 졸업 작품으로 'Daily Haptics'을 선보였다. 보기에는 비슷한 컵들이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 시리즈는 디지털화된 현 사회에 대한 대응점을 찾고 촉감과 소재의 경험을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산업 시대의 명확한 디자인과 기능성의 결합은 혼돈의 현대 사회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향수를 불러 일으킨다. 산업적인 미학에 새로운 기술과 기능성, 사용자 경험에 기반을 둔 아이디어들이 결합되면서 외관상으로는 아날로그적이고 기계적이지만 실제로는 스마트한 기능성을 탑재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미래적이면서 동시에 아날로그적인 이중적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날로그적이지만 편리한 기능성을 가진 클립 형태를 가진 USB와 같은 사이즈 내에서도 다양한 체형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몸매를 완벽히 표현해주는 마네킹 등 소비자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사용자 경험을 반영하여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표현한 다양한 제품들을 주목하자.

데이터클립.

일본 디자인회사 네도(Nendo)가 USB와 거대 한 페이퍼 클립의 결합 형태 디자인을 선보였다. 일명 '데이터 클립(Data Clip)'이라고 불리는 이 USB는 실제로 종이 클립으로도 쓸 수 있어 사용자들이 분실하기 쉽거나 휴대하기 번거로워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손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체형에 맞게 변하는 마네킹 핏보트 / FitBot

에스토니아와 독일을 기반으로 하는 바이로보틱스 회사 핏츠미(Fits.me)가 로봇 마네킹 '핏보트 (FitBot)'를 선보였다. 이는 구매자들의 치수를 바탕으로 수천 개의 바디타이프를 통해 마치 근육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의 변환 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스마트폰 노트 버전 2

노트 안쪽에 iPhone 4를 끼울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어 폰과 함께 노트를 이동용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각 페이지마다 아이폰 모양대로 컷 아웃하여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환경과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스케치하는 아날로그적인 환경을 동시에 제공해준다.



코임브라 대학의 현대성과 산업 미학의 결합

포르투갈의 건축가 요아오 멘데스 리베이로(João Mendes Ribeiro)가 리모델링한 코임브라 대학은 포르투갈 최초의 대학이자, 세계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대학들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다. 요아오 멘데스는 기존의 고풍스러운 공간을 살리면서 모던한 공간을 구획하거나 보일러실과 석탄 저장고와 같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을 도서관이나 강의실, 카페테리아로 활용해 시크한 공간을 만들었다.



영국 모던 디자인 역사 케네스 그랜지 회고전 / kenneth grange: making britain modern

지난 2011년 7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런던의 디자인 뮤지엄에서 열린 '케네스 그랜지 회고전'은 영국의 모던 디자인 50여 년 간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컨템포러리 미학을 바탕으로 형태와 기능을 잘 조화시킨 작품들은 현대 디자인이 최근 주목하는 사용자 경험 기반의 기능성을 고려한 간결한 디자인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GOOD CHIC / 착한 업사이클 상품의 새로운 세련성



지속가능성 속에 계속되고 있는 경향은 바로 업 사이클이다. 아름답고 세련된 재활용에서 시작해서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스마트한 방법, 그리고 환경을 사랑하는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똑똑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까지 우리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점점 진화하는 '좋은 세상'을 위한 소소한 아이디어들은 2013년의 일상성, 평범한 소스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방식을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착한 디자인들을 제안한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성능들을 구현하지만 그러한 기능성을 배제하고 디자인만으로 평가해도 충분히 새로운 세련미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디자인들은 자연과 역사에서 가져온 친근한 요소들을 미래적이고 현대적으로 변형하여 도시적인 제품들과의 호환성을 높인다.



냄새와 박테리아 박멸하는 / UV 스포츠 팩

'UV 스포츠 팩'은 냄새와 박테리아를 박멸해주는 스포츠 팩이다. 이 팩은 UV를 이용하여 공기와 표면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성 미생물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데 이용한다는 과학적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10 UV의 밝기의 LED빛을 뿜는 두 개의 유선 허브로 이루어졌다. 이 편리하고도 매끄러운 형태의 물체를 운동화 속에 넣어서 운동화 보관용 가방에 넣어 두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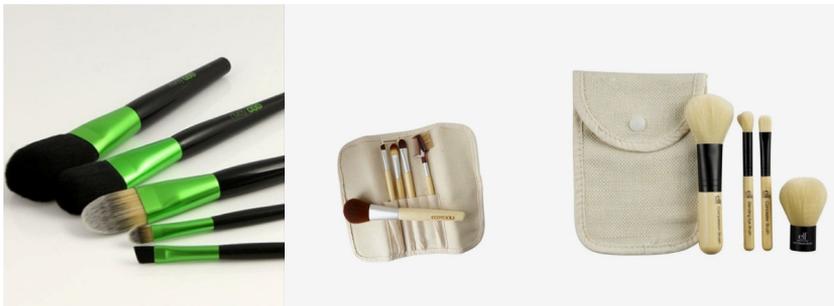
마네르바 Manerba 가구 재고의 새로운 정의

이탈리아 디자인 스튜디오 '소브라아펜시예로(Sovraappensiero)'가 오피스가구의 대안책으로 선보인 컬렉션으로, 제품에 대한 재해석과 미학에 대한 재고과정을 통해 가구회사 마네르바(Manerba)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사무용 가구 재고들을 재사용하여 컬렉션을 만들었다. 오래된 제품이 가지는 거대한 가능성과 구닥다리 제품을 회수 할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은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에 대한 해답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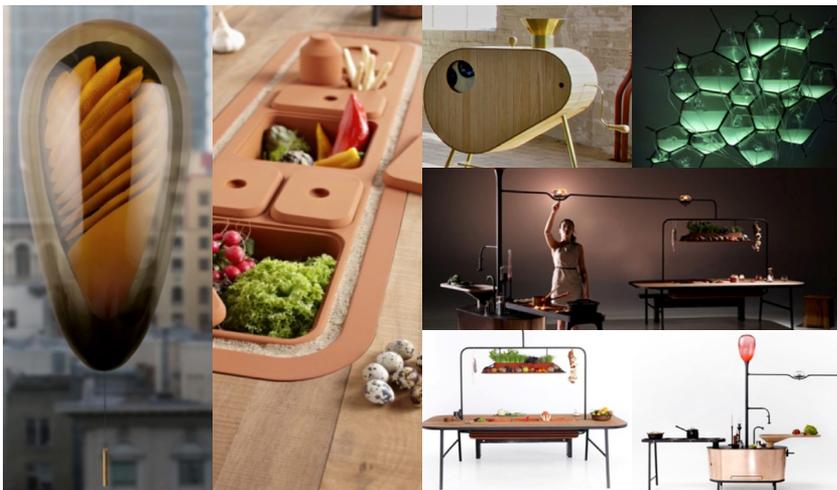
전기 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메가폰

이탈리아 디자이너 이사벨라 로베로(Isabella Lovero)와 엔리코 보사(Enrico Bosa)가 만든 en&is 스튜디오에서 '메가폰(Megaphone)'이라는 제품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터치 사용자를 위한 세라믹 확장기이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전축의 확장기처럼 형태에 따라 생긴 공간을 이용해 음파가 확장되어 음악을 즐기게 해준다..



친환경 비폭력주의 브러쉬

사냥과 율가미를 이용하지 않는 비폭력 브러쉬에는 신세틱 인조모가 사용되는데, 이는 오히려 동물모에서 생길 수 있는 박테리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이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주로 인조모에는 테크론(Taklon)과 리넨을 가공 처리한 소재, 재활용된 폴리프로필렌이 사용된다.



필립스가 소개하는 미래형 주거 / 미생물집

필립스의 '미생물집 프로젝트'는 자연의 통합적 순환적 에코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 안에서 집이란 하나의 생물학적 기계로써 쓰레기와 오염 등을 정화시켜 재활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원을 소비하지도 않고 쓰레기도 생산하지 않는 완전 생태계인 셈이다. 자급자족 주거용 시스템으로 다섯 개의 모델이 소개되었다. 1)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자급자족 생물학적 분해 부엌, 2)전기 없이 증발식 기법으로 토기에 음식물을 저장할 수 있는 음식 저장고, 3)벌을 끌어 들어 꿀을 자급자족하게 해주는 도시형 벌집, 4)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미생물이 분해하게 해주는 플라스틱 폐기물 업 사이클 기계, 5)물 여과 장치가 그것이다.



소셜 바이크 / 소비 Sobi

GPS 가능 전자 잠금 장치가 장착된 도시형 자전거 '소비(Sobi: Social Bicycle)'는 도시 거주자와 방문객을 실시간으로 모바일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전거 공유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컨셉용 자전거이다. 기존의 자전거 보관 시스템의 3분의 1 정도의 비용만으로 운영 가능한 '소비'는 시스템 허브를 따라 중심지에 디자인되어 있지만, 사용자들은 시스템 존에 상관없이 아무 곳에서나 주차하고 떠날 수 있다.

Design Trend Theme

SURPRISE

2013년은 '서프라이즈의 해'이다.

디지털 도구의 발전은 새로운 실험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의 호기심과 실험정신을 자극하고 있다. 평범하면서도 지속력 있는 요소들이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며, 21세기의 도구와 프로세스를 통해 예기치 않은 소재와 컬러 그리고 형태들로 디자인하는 것이 화두가 된다. 즉, 전혀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닌 기존에 존재하는 것들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연결을 통해 서프라이즈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시즌 디자인의 가장 큰 방향성이다.

아프리카의 지역성과 아시아적 시각에서 본 자연, 게르만의 사용자 경험과 기계적 메커니즘이 2013년 트렌드의 주요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원천들은 이전에 없던 독특함과 특이함이 아닌 오히려 일상적인, 하지만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새로운 표현방식들을 활용하여 표현된다. 2013년의 놀라움은 바로 이와 같이 독특한 원천의 놀라움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과 표현을 통해 창출되는 놀라움이다. 이를 바탕으로 4 개 테마, Fantasia, Out-standard, Artisan, Engenius를 제안한다.

TREND FLOW / 일상적인 즐거움을 키로
새로운 서프라이즈 테마 4가지가 도출된다.

TREND KEY

Clean Craft

Daily Sensing

Mis-Blending

Smart Industrial

Good Chic



DAILY PLEASURE / 일상적인 즐거움

평범함과 일상성이 깨끗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연결을 통해 신선한 즐거움을 제공한다



평범함

일상성

깨끗함과 현대성

의외의 특별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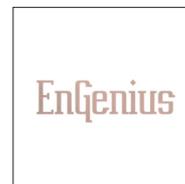
아프리카의 지역성과
인공성을 결합시켜
현대적으로 표현



게르만 UX를 볼드한
그래픽으로
현대적으로 표현



동양적인 자연을
첨단 기술의 섬세한
수공예로 재해석



산업 시대의
기계 미학을 로맨틱과
결합하여 새롭게 해석

게르만. 독일,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을 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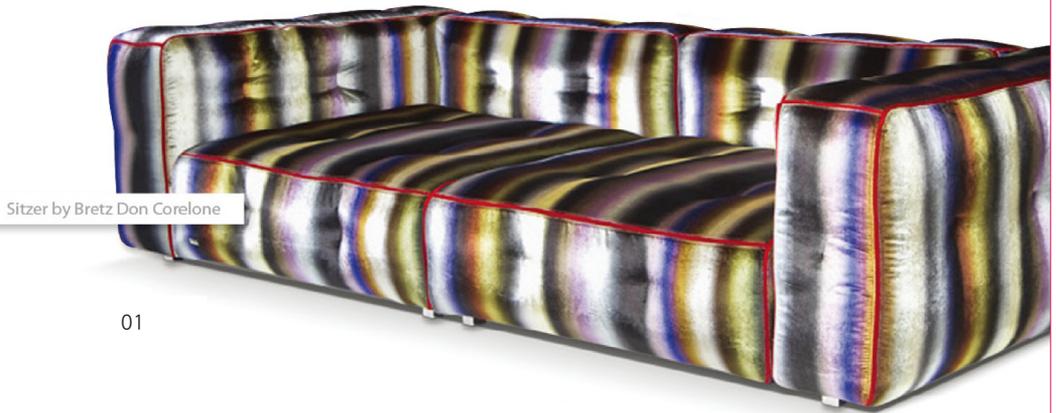
Fantasia



- 영감의 원천.** 아프리카적인 영감
평범과 일상성. 과거의 아프리카가 아닌 현재의 아프리카
깨끗함과 현대성. 원시적인 느낌을 보다 현대적으로 다듬어서 사용함.
 인공적인 광택과 컬러가 가미됨.
의외의 특별한 연결. 가장 원시적인 느낌을 가진 아프리카를 미래적인 느낌을 가진
 인공성과 결합시킴.

아프리카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환경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원시 자연의 식물, 민속적인 수공예 요소, 아프리카적인 컬러가 영감의 원천이 된다. 아프리카적인 강렬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의 전통보다는 현재의 일상을 살아가는 아프리카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열대 지방의 식물 프린트와 원시적인 패턴들로 디자인은 이국적이고 화려하지만 형태는 굳어지지 않고 단정하다.

인공적인 재료들과 광택감은 아프리카를 개발되지 않은 느낌 대신 오히려 미래적이고 환상적인 느낌으로 재해석된다.



Sitzer by Bretz Don Corelone

01

02



03



아프리카의 에스닉한 요소들과 인공적인 재료와 공법 사이에 대조되고 흥미로운 매력을 가져간다. 아프리카의 수공예 기법과 자유로운 컬러링에서 영감을 받지만 완성된 디자인은 현대적이다. 거친 표면들은 코팅되어 매끈한 표면을 지니고, 반대로 인공적인 소재들은 수공예 기법을 통해 장인의 손길이 깃든다. 전반적으로 정돈되고 단순한 형태감을 채택하여 소재의 특성과 패턴들을 부각시킨다.

01 By 브레츠 돈 끌레오네 (Bretz Don Corelone)

02 By 스튜디오 포터블 (Study O Portable)

03 By 루치아나 곤잘레스 프랑코 (Luciana Gonzalez Franco)

Out Standard



영감의 원천.

평범과 일상성.

깨끗함과 현대성.

의외의 특별한 연결.

게르만 디자인

일상의 쓰임을 고려한 디자인 변형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과도한 장식성은 절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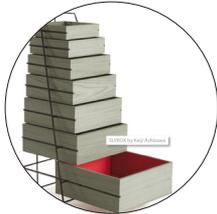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인 전통에 미래적인 사용자 경험(UX)적 요소를 결합하고 대담하고 화려한 컬러 배색을 결합함.

기능성과 대담함이 트레이디션을 한층 젊고 활력 있게 표현한다. 게르만 특유의 남성적이고 직선적인 형태의 디자인들, 기능성을 위해 평범과 전형에서 일탈한 위트 넘치는 디자인들이 영감을 준다. 경험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위치 이동과 변형이 가미되어 차별화를 가져오고 전통은 현대적인 것들에 의해 절충적으로 변화한다. 대담한 컬러 코디네이션을 통해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실용주의에 감각을 가미한다.

01



02



03



04



게르만 특유의 위트와 창의력은 전형적인 형태들과 기준들을 일탈시킨다. 기존의 기준들이 자유롭게 해체되고 유입되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한다. 공공성과 개별성, 목적성과 사용 방식들이 매우 유연하여, 사용자가 공간과 제품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한다. 형태는 대담하고 실험적이지만, 기존의 틀에서 과도하게 벗어 나지는 않는다. 소재는 나무, 철재 등 내구성과 실용성이 우선이다.

- 01 By 윌리엄 림(William Lim of CL3 Architects)
- 02 By 케이지 아시자와(Keiji Ashizawa)
- 03 By 파올로 폴루코(Paolo Pollucco)
- 04 By 피에르-질(Pierre-Gilles)

Artisan

영감의 원천.

평범과 일상성.

깨끗함과 현대성.

의외의 특별한 연결.

동양의 관점에서 본 자연

가볍고 편안한 소재를 통해 활용도를 높임

동양적인 절제, 테크놀로지를 통한 현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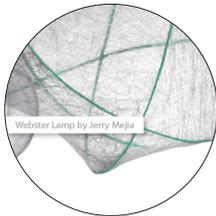
동양적인 자연에 테크놀로지와 장인 정신이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시킴.

자연과의 순응을 우선시하는 아시아의 디자인 철학은 첨단 기술과 함께 마치 꿈꾸는 듯한 시적인 자연을 만들어 낸다. 계획되지 않은 우아한 곡선들은 도발적이고 매혹적인 형태감을 만든다. 자유로운 디지털 장인 정신은 테크놀로지와 예술 사이를 오간다. 투명하고 유연하며 촉감 있는 가벼운 소재들은 편안하면서도 센슈얼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01



02



03



04



05



최신의 기술을 통해 자연의 시적이지만 도발적인 형태들을 만들어 낸다. 굽이굽이 불규칙한 형태들이 부드럽고 연약한 소재와 컬러들로 디자인된다. 불규칙한 형태지만 소재는 연약하고, 단순한 형태지만 자연의 표면감이 살아 있으며, 부피감 있지만 공기처럼 가볍다. 소박하고 공간에 매치된 자연의 드라마틱한 형태들은 편안하면서도 꿈꾸는 듯한 공간을 연출한다.

01 By 카타야마 분자부로 쇼텐(Katayama Bunzaburo Shoten)

02 By 제리 메지아(Jerry Mejia)

03 By 쿠마 켄고(Kuma Keng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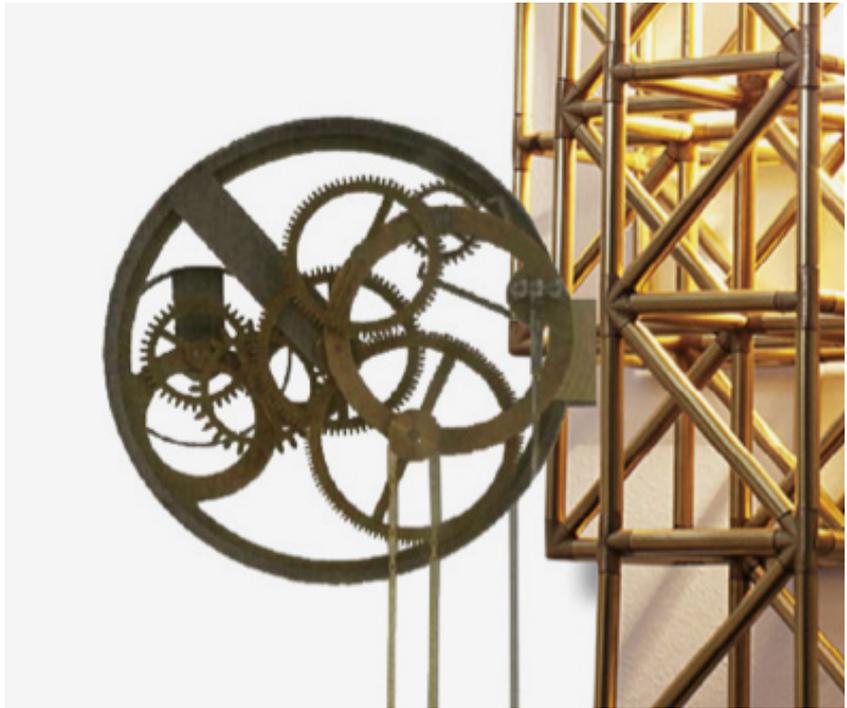
04 By 조지 두빈스키(George Dubinsky)

05 By 호름(Horm), 로버트 스타들러(Robert Stadler)

Engenius

- 영감의 원천.** 산업 시대의 기계 미학
평범과 일상성. 거친 기계 대신 재조립을 통해 활용도가 높아짐.
깨끗함과 현대성. 고풍스러운 외관이나 새로운 방식의 소재 결합과 컬러 매치로 현대적인 누앙스를 가짐.
의외의 특별한 연결. 딱딱한 기계 미학에 로맨틱이라는 이질적인 요소가 결합됨.

예측이 불가한 멀티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은 단일 프로세스의 기계 미학을 찾는다. 여기에 성숙해진 재활용의 움직임이 함께 해 19세기 산업 시대의 기계적 요소들이 활용된다. 로맨틱한 고풍스러움과 산업시대의 기계적 산물들이 해체, 재조립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재결합된다. 녹슨 자재들은 부드러운 로맨틱 컬러로 현대적으로 변모한다.



01

02



03



04



05



기계적이고 산업적인 미학과 장식적인 클래식이 현대적인 공간 속에 주입되어 현실과 초현실 사이의 미학을 만들어 낸다. 콘크리트, 철물 등 버려진 산업 자재들이 재활용되고, 아날로그적 방식이 우선시 된다.

01 By 말루인(Malouin)

02 By 데이비드 테일러(David Taylor)

03 By 헬라 옹에리우스(Hella Jongerius)

04 By 리처드 클락슨(Richard Clarkson)

05 By 니엘 스멜틴크(Niels Smeltink)